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도농협력사업단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

김제시 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은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양일간 6차 산업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체험 주제 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도농협력사업단은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民), 산(産), 연(研), 관(官)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여기에는 두월천 노을권역, 외갓집농법인, (농)동김제로컬푸드 공취사랑, (사)글로벌부커데 등 총 4개소가 체험주체로 참여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사업단 및 참여주체들은 아생화, 원예작물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체험학습 전문교육기관인 '벚넛'을 시작으로 100%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전빵 제조, 전국으로 판매중인 '슬기네 제빵소'를 견학하여 김제시 6차 산업의 경쟁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2개 이상 주체가 참여·진행하는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 상반기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실시... 이달 말까지

완주군이 위반 건축물 단속·정비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완주군은 건전한 건축 질서 정착을 위해 2개 반을 편성, 2019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2년여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라 위반건축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된 비교적 규모가 큰 다중이용 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완주군은 적발된 무단 건축행위는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화재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건축주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협동조합 설립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 등 상생발전포럼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11일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삼락로컬마켓에서 완주군(부군수 정철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근석),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사장 조만승), 국민연금공단(사회적가치실현담당 김선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포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민·공·관이 협력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주민이 혁신도시의 불편한 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학습·토론, 아이디어 발굴 등 상생발전포럼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포럼은 ▲주제별 분과 토론 ▲실태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통합워크숍 등의 활동으로 이뤄지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11일 전북혁신도시 삼락로컬마켓에서 민·공·관이 협력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정철우 완주부군수는 "민·공·관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만큼, 공동체가 살아있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혁신도시가 공익적 가치 창출의 빛을 발해 전국 으뜸이자 명품 혁신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올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서 전라북도 자체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서면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지평선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아이·맘

행복 돌봄 공간(공동육아방, 장난감도서관, 어울림카페 신설), 청소년 꿈나무 키움공간, 가족 어울림공간 등 아동·청소년·여성·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김제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김제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

년과 일자리, 결혼, 출산, 양육, 정주여건 개선, 다문화·고령화 분야에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육성정책 추진,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펼쳐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상원, 곽정근)는 11일 성덕면 복지회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후 여름철을 맞이하여 사랑의 김치나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랑의 김치나눔사업은 지역 복지현안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열무김치와 배추김치를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담가 독거 남성 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게 배달 봉사했다.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해 정성스런 사랑의 손길을 모아 손수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부터 김치 배달까지 함께해 지역사

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 희망나눔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화음품 지원사업 추진에 이어 이번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신기방기놀이터가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추진한다.

# 신기방기 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로

## 완주군, 아동 학부모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 신기방기 놀이터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11일 완주군은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틈새없는 돌봄, 다양한 돌봄, 맞춤형 돌봄'을 위해 비봉면에 위치한 신기방기놀이터가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아동 학부모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호응도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기별로 조정·운영할 방침이다.

박준희 신기방기놀이터 센터장

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가 많은 요즘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대 됐다"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모두의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기방기 놀이터는 지역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모여 자유롭게 놀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주군과 세이브더칠드런, 한솔제지 3개 기관이 함께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 2016년 문을 열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최 18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11일 제22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개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의결한 뒤 폐회한다.

각 상임위원로 진행되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연초 계획한 시정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고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김제시 인구정책 및 조례안' 등 10건,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의 '김제시 병역명단 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운주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29회 임시회가 의외로로는 하나된 모습으로 시민사회를 결집시켜 김제시가 직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가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연초 계획한 시정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고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김제=곽노태 기자

**IMSHI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